

“광주형 일자리 ‘갈등설’ 사실 아냐”

이용섭 광주시장-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공동기자회견

출범식 불참·이사 선임 해명...“광주발전과 시민만 보고 담대히 갈 것”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25일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이 될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간 갈등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25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노조 분파'와 '사업자초 현상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윤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6개 기업들이 자본금 2300억원을 모두 출자함에 따라 23년만에 국내 자동차공장을 착공하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을 노사민정이 합심해 성사시킨 것으로 분명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가 노동이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지난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이사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지역노동계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의장은 노동계가 ㈜광주글로벌

모터스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범식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출범식이 투자자인 발기인들이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며 "노동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출범을 환영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초 실무자들이 만든 초청대상 초안에는 윤종해 의장 등 외부인사들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출범식이 발기인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사 2인을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시장은 "발기인총회 사회를 맡은 임시의장 배정찬 그랜카진흥원 원장이 인사추천위원회 등에서 자동차와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되기를 바란다는 건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논의해보기 위해 이사 2인 선임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발기인들이 동의했다"며 "이날 총회에서 발기인들은 제2대 3대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를 별도의 회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과 윤 의장은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광주형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요 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선했고 발기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러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자리

는 혜택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공장건설 중앙정부의 지원, 주주간 협력, 노사상생 등 풀어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현실하고 봉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자리"라며 "다양한 경륜과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 무게감 있는 인사가 맡아 조기에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들은 또 "노사관계를 비롯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운영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지난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체결한 '완성차사업투자협약서와 5개의 부속서류'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는 5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노사민정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맺은 협약서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 2인과 감사 2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관련서류가 구비되는대로 법인등기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예정대로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2대 주주이며 사업파트너인 현대자동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은 앞으로도 광주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조언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매사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까지 수용하다 보면 광주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광주는 발전할 수가 없다"며 "갈등은 바람 따라 불결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광주발전과 광주시민만 보고 담대하게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이 힘을 보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치맥하며 이웃 간 소통 시작해요”

지난 23일 저녁 광주 동구 학운동 소재 한 아파트 마당에서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치맥파티를 즐기는 이색풍경이 펼쳐졌다.

마을분쟁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소통방 개소식을 계기로 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친교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학동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 주최로 열린 이날 소통방 개소식은 임택 동구청장, 박종균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소통방 이음지기 공모 시상식'도 개최됐다. 선정된 소통방 이름은 '숲속누리 소통방'으로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주거환경을 잘 부각시켜 주민투표에서 1등을 차지했다.

서구, 평화통일열차 운행한다

광주 서구와 광주 서구문화센터(관장 이윤기)가 평화통일열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약속했다.

20일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 평화통일열차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전개 ▲ 내실있는 준비를 위한 기관간 역할분담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

평화통일열차는 오는 10월 4일 104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광주역에서 도리산역 구간을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오전 7시 출발하여 오후 10시 30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열차 내에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지게 된다.

남구, 보조금 부정수급 등 꼼수 일벌백계

광주 남구는 최근 전국에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각종 비리가 연거푸 발생함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지방 보조금 관리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지방 보조금 관리 통합교육'이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남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4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남구청에서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배송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 지원 등 총 28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구,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운영

광주 북구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민원업무 처리 시 법규해석 차이에 따른 업무 처리를 일원화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사례를 연구해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 학습동아리'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학습동아리'는 대부분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신규 임용자임을 감안, 업무연찬을 통해 수시로 변경되는 법령과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관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14년부터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 주민등록(등록, 말소, 정정 등)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국외이주 △ 인감·스본인서명사실확인제 등 4개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해 월 1회의 정기모임과 분야별 수시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광산구, 책 배달 서비스 실시

광주 광산구가 구립도서관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는 '책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책 배달 서비스는, 주민이 5곳 광산구립도서관 도서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원하는 구립·작은도서관에서 받아 보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 공동 이용 제도.

구립도서관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번에 책 3권을 2주간 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산구는 그 첫 단계로 구립도서관 장덕·이야기꽃·첨단·신가·운남 어린이 도서관과 사랑나눔·우산동·해운마루·첨단빛누리·책놀이 공립작은도서관을 묶어 배달 서비스에 들어갔다.

임형택 기자

호남권역 광역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역 광역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호남권역 광역의회는 지난 23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권역 광역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0년 동안 근본적 개혁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로

지금에 이르렀다"며 "지방은 겨우 20%의 힘으로 중앙정부의 단순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91년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고 30여년, 각 지역의 변화와 함께 행정력과 정치력, 주민력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또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30년 전 법과 제도로 지방을 판단하고 규제하고 가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네 곳곳을 살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곳에는 입법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과 사업으로 지방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중차대한 책무가 지방의회에 있다"며 "지

방의회에 인사독립권을 부여하고 1대 1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공약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실질적 주민자치 보장과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자치와 분권은 지역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평균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9년 단 105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상천 (650205-1647915)
최 후 주 소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신동길 46-3

위 망 이상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8월 26일

공 고 인 : 이수지
주 소 : 광주 남구 용대로 171번길 7, 1동 304호(방림동, 삼일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8월 22일
공고기간 : 2019. 8. 26 ~ 2019. 10. 26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

- 전남에는 노사민정 시작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연금,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든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노사공동조정실운영위원회